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삼, 세종시를 탐구하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세종시민과 행정기관의 입장 차이 및 상호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2016. 10. 22

조규성, 지원재, 한예원, 최준휘, 한혜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세종시 주민과 행정기관의 입장 차이 및 상호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조규성, 지원재, 한예원, 최준휘, 한혜선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세종시에는 2016년 10월 현재 2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4만 명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도시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주해오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종시가 어린 연령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는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크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세종시가 그만큼 안전한 도시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우리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세종시가 신설도시여서 갖는 여러 장점을 먼저 알아보고, 실제 세종시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되어나가고 있는지 시청과 학부모 양쪽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듣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직접 탐사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탐사 과정

가.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시청의 입장 및 통계 알아보기

1) 시청 탐방

A. 민원실 민원 기반 시청의 입장 파악

세종시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민원실에 들어가 안전행정부, 교통안전부, 환경정책부 소속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세종시의 대처 방안 및 세종시의 안전 여부를 나누었다. 모두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안전 문제 또한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안전에 관한 민원은 공사 관련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오지 않으며(새집 증후군 민원도 2년 동안 단 한번 들어왔다고 한다.) 소음은 어쩔 수 없지만 공사로 인한 먼지도 살수차를 배치하여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주셨다.

B. 통계자료 조사

세 부서에 모두 학생 사고 관련 민원 통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인하여 안전행정부에게서만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나. 어린 자녀를 둔 세종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시행

1) 설문조사

A. 시행 방법

- * 온라인 설문지 - 세종시의 시민들이 상당수 가입한 카페(한 곳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이다.) 2곳 각각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소 평가 설문지를 업로드하여 오프라인 설문지와 결과를 취합하였다.
- * 스티커 투표 - 길거리에서 “세종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가?”를 주제로 예, 아니오에 스티커를 붙이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 오프라인 설문지 - 온라인 조사와 거의 동일한 문항에 온라인 조사에서 다수 등장한 불편사례의 공감 여부를 묻는 종이 설문지를 배포하여 결과를 취합하였다.

다. 학부모 설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학교 탐방을 통한 확인 및 탐구

1) 미르초등학교, 미르 유치원

- * 학교와 아파트 단지 내부로 바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다.
- * 육교가 없는 쪽의 도로는 2차선으로, 학원차량, 등하교를 도와주는 학부모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다.
- * 지하주차장이 있어 평소 주차에 어려움은 없다.

2) 나래초등학교, 나래유치원

- * 학교와 아파트로 연결되는 길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 * 경사가 저 있어 속도를 줄이기 힘든 왕복 6차선 도로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고운초등학교

- * 신호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로터리들이 많다.
- * 로터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힘든 구조이다.

라.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시청의 해명 및 해결 방법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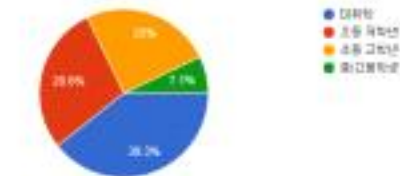
1) 안전 관련 담당자님의 의견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법과 규제 내에서 활동하므로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민의 불편함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며, 특히나 세종시의 공무원 대부분은 세종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 호의적이라고 한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힘들고, 민원콜센터 등의 방법들이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셨다.

시민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 시민 상호간의 소통도 더 잘 일어나서 더욱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준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세종시가 발전 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행정기관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면서, 우리가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주셨다.

- 가. 취득한 통계 자료들
- 1) 세종시의 안전 및 민원 사례들
 - 2) 설문조사 시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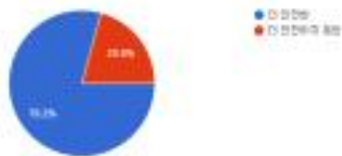
1. 자녀의 연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5개)



2. 언제부터 세종시에 거주하셨나요? (단일 응답)



4.3. 세종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함/더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복합응답)



43. 혹시 학교/어린이집에 신원검열이어서 그 환경 요인은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illegible]

6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충제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에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illegible]

5.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교/하교 과정에 있어서 적절히 위험요소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illegible]

설문은 대부분(81.4%) 오랫동안 거주한 미취학~초등 고학년의 아이가 있는 학부모 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9.2%로, 세종시에 대한 인식은 좋았다. 허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존재했는데, 새집증후군 등의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설문자들이 안개나 육교의 부재, 횡단보도의 위험 등 교통 관련 안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세종시의 안전 규제와 정책 시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아이들에게 안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신설 건물에 대한 환경규제와 행정기관의 정기적 검사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과 범죄 위험 등이 적으며,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등 독특한 도시 구조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계획과 정책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세종시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기관과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이므로, 이들 사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도시가 ‘만들어진 후’ 사람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주하여 바꾸어감으로써 ‘만들어가는’것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탐사를 통해, 지금 세종시에서는 행정/교육기관과 학부모 사이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견 교환과 소통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통안전, 실내공기, 짙은 안개, 공사차량 과속 등 여러 특징적인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도시’라는 특성상, 사람들이 새로 이주하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지금 더더욱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불안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신도시이므로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피상적 이해 아래 많은 문제점들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던 경로는 ‘동사무소/시청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두 가지였다.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가 많았던 데에 비해 실제로 민원까지 가는 경우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민원콜’등 불편 및 제안 사항들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육교의 예시를 들어보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6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학교가 있다. 부주의가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가와 학교를 이을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자료 조사와 더불어 탐사를 해 본 결과 주택가와 학교를 이어주는 육교가 있는 학교도, 없는 학교도 있었다. 설문조사 의견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요구는 교통과 육교 관련이었다. 그러나 설치가 안 된 곳 중 하나인 나래초등학교 부근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더불어 민원실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인 것 같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 도시는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

5. 활동 후기

첫날 시청에서 각 부서 공무원 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세종시는 안전 측면에서 잘 계획되고 검사 및 유지 등도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극히 적은 위험만이 존재한다는 답변들을 듣게 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어 개선점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명 시청의 입장과 실제로 생활하는 시민들(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리라는 생각으로 계속 설문조사를 열심히 진행하면서, 시청에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개선점들을 꾸준히 찾아나가며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 개인별 소감

규성 : 이번 인문자연탐사 때 세종시의 여러 곳을 탐방해 보았다. 특히 길거리 설문조사와 스티커 붙이기 등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더불어 공무원 측과 시민 측의 입장, 느끼는 것 등이 많이 다를 수 있었다.

예원: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세종시이기에 더더욱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함을 느꼈다. 안전 측면에서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진 것을 사실이지만, 학부모가 느끼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 사람들이 입주해 ‘만들어가야’하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학부모들 사이의 소통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안타까웠다. 상호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다. 또,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대화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 듣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원재: 세종시를 돌아보며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종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은 많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종시는 현재 주민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은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시간을 갖고 좀 더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혜선 :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하며 세종시청, 초등학교, 상가 등을 가보았는데 각 동마다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청의 입장과 실제로 경험하고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준휘 :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느낄 수 있었고, 도시 계획 때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다. 세종시를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6. 참고 문헌

▶ 어린이 ·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근린환경요인 [KCI등재] (이세영, 이제승,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6), 2014.12, 5-15)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연구 (이호원, 주두환 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도로교통공단 발간자료, 2014)

- ▶ ‘자전거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 2013.12)
- ▶ 세종시 교통이 나날이 개선되길 바라며 (박종록,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13, 2015.11)

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5. 3